

논문접수일 : 2012.09.19

심사일 : 2012.10.06

게재확정일 : 2012.10.28.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에 나타난

존 갈리아노 작품의 조형적 특성

- 2006 S/S ~ 2010 F/W 오프꾸뛰르를 중심으로-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John Galliano's Works

which Appears in the Christian Dior Collections

- Based on 2006 S/S ~ 2010 F/W Haute Couture -

주저자 : 서지영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Suh Ji You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 임지영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Lim Ji You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본 논문은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일부임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크리스찬 디올 오픈 꾸뛰르
- 2.2.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

3. 연구 방법

- 3.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3.2. 분석 기준

4. 결과 및 고찰

- 4.1. 형태
- 4.2. 색채
- 4.3. 소재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현대 패션의 빠른 흐름 속에서 대중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의 작품 경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 중에서도 오래되고 익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 디올은 존 갈리아노를 디렉터로 영입함으로써 그만의 개성을 덧입힌 크리스찬 디올의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새롭게 어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리스찬 디올사의 오픈 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존 갈리아노 작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연구내용은 패션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형태, 색, 소재의 3요소에 중점을 두어 존 갈리아노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영국 보그 사이트를 기준으로 2006 S/S부터 2010 F/W까지의 크리스찬 디올 오픈 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 374벌을 수집하였으며, 각각의 사진들을 형태의 실루엣과 디테일, 색채의 색상, 톤 그리고 배색, 소재의 무늬와 재질감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체크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크리스찬 디올 오픈꾸뛰르 컬렉션에서의 존 갈리아노 작품의 특징으로는 선대의 디자이너인 크리스찬 디올의 디자인을 차용하여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미를 살리는 실루엣과 부드럽고 은은한 색상을 사용하면서 때로는 존 갈리아노의 특징인 강렬한 색상의 대비를 포인트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의 작품 속에 표현된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디자인 전개에 앞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며, 이를 통한 디자이너의 미적 가치와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크리스찬 디올, 존 갈리아노, 조형적 특성

Abstract

It is important task to recognize the trends of the works of designers and to decide on methods to apply these trends in order to be aware ahead of time of what the public wants and to be a leader in setting the latest trends in the midst of the fast changes of modern fashion. Christian Dior with its old and mature image has recruited John Galliano as the director and is providing a new appeal with elegance and femininity of Christian Dior products that has his personality on the product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of John Galliano that appears in the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Collections and to analyz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John Galliano's works by centering on the 3 elements of form, color and materials that are fundamental to fashion design.

As research methods, 374 pieces of clothing that appeared in the Christian Dior Collection from Spring/Summer 2006 to Fall/ Winter 2010 according to the Vogue website of Great Britain were selected and an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the silhouette and the details of the shapes, the hues of the colors, the tone and arrangement of colors, the patterns and texture of the materials was conducted by utilizing a checklis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of John Galliano in the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Collection revealed a silhouette that made the beauty of the female body come alive using soft and delicate colors by borrowing from the design of his predecessor Christian Dior and the strong contrast of color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John Galliano works that were utilized to make a statement. To analyze each of the elements that have

been expressed in the works of a designer who defines an era of fashion is one of the processes that are required prior to an introduction of a design 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is study will be basic research material in analyzing the values and image of the designer as well.

Keyword

Christian Dior, John Galliano, Formative Characteristics

1. 서론

전 세계의 유행을 주도하는 디자이너들의 패션 경향은 매 시즌마다 새로운 패션쇼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이 중 오프뚜르 컬렉션은 오랜 전통을 지켜 오면서 예술성과 시대성, 기능성이 잘 조합된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창작디자인으로서 시대적 예술 사조나 시대정신과 연관되어 브랜드 특유의 창조미와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대중성에 대한 고려가 많은 기성복 라인인 프레타포르테 컬렉션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창출하여 대중들의 민감한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중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오프뚜르에 제시되는 작품들의 경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오프뚜르 컬렉션을 진행하는 브랜드 중 크리스찬 디올은 브랜드의 전통적 가치를 여성스러움과 고급스러움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의 개성에 충실한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다. 디올은 전통을 중시하며 새련되지 못하고 오래된 이미지를 대중에게 주며 새로움을 어필하지 못하였으나, 존 갈리아노를 디렉터로 영입함으로써 젊은 감각과 유머러스함을 더함으로써 그만의 개성과 크리스찬 디올의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새롭게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크리스찬 디올은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존 갈리아노만의 독특한 디자인 특성이 드러나며(구미지, 2001; 정정희, 고현진, 2009), 크리스찬 디올의 여러 디자이너 사이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과 각 디자이너에 따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미선, 채금석, 2003).

그러므로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디올 오프뚜르 디자이너 중 젊고 세련된 그만의 독

특한 감각으로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브랜드에 새로운 붐을 일으킨 장본인인 존 갈리아노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찬 디올 오프뚜르에 관한 연구에서 크리스찬 디올과 존 갈리아노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연구(조규화, 1977; 김명숙, 1995; 구미지, 2001), 존 갈리아노의 작품에 표현된 패션이미지에 관한 연구(전혜정, 이윤정, 2006) 등이 진행되어져 왔으며, 그 외에 디올과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의 비교연구(김영란, 2010),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과 미용, 헤어 등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져 왔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현대의 젊은 감각을 이끌어내는 디자이너의 작품 속에 표현된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미적 가치와 시대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는 것으로 새로운 디자인 전개에 앞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랜드의 고유 이미지를 추구하는 디자인 방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매 시즌마다 새로운 감각을 앞세워 소비자를 리드하는 패션 경향을 선보여온 크리스찬 디올사의 오프뚜르 컬렉션에 나타난 존 갈리아노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형태, 색, 소재의 3 요소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연구되어졌다.

2. 이론적 배경

2.1. 크리스찬 디올 오프 뚜르르

오프뚜르르는 값비싼, 고귀한, 격조 높음을 일컫는 오프(Haute)와 재봉술, 의상실을 뜻하는 뚜르르(Couture)가 합쳐져 고급 의상점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하이 쏘잉(High sewing) 또는 하이 드레스메이킹(High dressmaking)이라 하여 전문적인 맞춤 의상을 일컫는다. 이는 19세기 중엽 파리에서 영국인 찰스 프레드릭 워쓰(Charles Fredrick Worth)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자신의 작업실에서 어떤 특정한 고객의 주문으로 최상의 품질과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맞춤 의상이었다.

크리스찬 디올은 1938년 처음으로 피케(Piquet)의 모드 하우스에 데시나뻬르로 입문하였으며, 1947년 세계 2차 대전 후 시대적인 상실감에 차 있던 사회 분위기 속에 남성적이고 직선적인 밀리터리룩이 유행하던 당시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한 디올의 뉴룩(New Look)의 소개는 패션에 새로운 양식을 제시

하였다. 그는 뉴욕을 발표하면서 오프꾸뛰르 역사에 기록 될 만한 대성공을 거둔 첫 컬렉션을 발표하였고 1949년에는 고급 프레타 포르테를 제작하는 디올사가 설립되었다. 1957년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간에 걸쳐 세계 패션계에 영향을 준 그는 매 시즌 새로운 알파벳 라인을 선보이며 혁명적인 실루엣으로 불멸의 명작을 남겼으나, 디올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여성스러운 우아함이었다. 조규화(1977)의 연구에 따르면 디올 디자인의 특성은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울, 타프타 등 소재 자체가 보유한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신체 곡선을 살려서 여성적 곡선의 조형미를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후, 크리스찬 디올 패션은 창시자인 크리스찬 디올을 비롯해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마크 보양(Marc Bohan), 지안 프랑코 페레(Gian Franco Ferre)를 거쳐 존 갈리아노에 이르며, 브랜드의 전통성과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면서도 디자이너에 따른 특색을 나타내며 유지되어 오고 있다. 정정희, 고현진(2009)의 연구에서 Dior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엘레강스하고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여성의 신체 곡선을 다양한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조형화한 여성스럽고 우아한 화려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브랜드의 전통적인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1997년에 영입된 존 갈리아노에 의해 디자이너 개인의 독창성을 반영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면서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뉴욕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존 갈리아노는 디올의 자료실에 소장된 기록들을 근거로 그의 첫 컬렉션(1997)을 뉴욕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하였다. 그 후 계속 되는 컬렉션을 통해 그는 디올의 디자인을 차용하여 거의 흡사한 실루엣을 심플하고 과감한 현대적 이미지와 함께 동양적인 이미지를 함께 전달하고 있으며, 전통과 진보가 공존하는 디자인의 실증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그의 컬렉션은 과감하며, 민족적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전해정, 이운정(2006)의 연구에서는 과장되고 유머러스함 속에 환상적인 로맨틱과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다. 존 갈리아노는 이러한 디자인 차용과 본인의 취향을 담은 작품을 매 시즌 발표함으로써 디올과 같으면서도 다른 색다른 매력으로 현대의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것은 오래되고 노숙한 브랜드의 이미지에 젊고 캐주얼한 감각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듯 크리스찬 디올의 오프꾸뛰르 컬렉션은 오

랜 전통을 지켜오면서 매 시즌 새로운 기술로 디자이너의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디자인을 창출해냄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면서 브랜드의 고유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디올 패션의 대표적인 특성은 크리스찬 디올의 대표 작품인 뉴욕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인체를 꽃에 비유하여 부드러운 곡선의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우아하고 귀족적이며 여성의 인체미를 강조하여 나타났다. 이와 같은 디올의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화려함과 우아함의 로맨틱시즘과 조형적 관능미인 에로티시즘은 지금까지도 디올의 디자인 철학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역대 디자이너들의 개성적 창의성을 가미하고 시대적 배경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랑스의 대표적 패션하우스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2.2.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는 형태, 색채, 소재이며, 이들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패션의 이미지를 창출하며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형태는 의복의 특징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로 전체적인 외곽을 표현하는 실루엣이 있으며, 의복 형태 분석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루엣 분석이 된다. 실루엣이 의복의 외곽선인데 반해 디테일은 세부적, 부분적 장식을 나타내는 말로 의복을 개성적으로 보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의복의 가치도 높여 주므로 다양한 부분 장식을 변형해서 사용함으로써 디자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패션에서의 색채는 패션 디자인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전달 매체로서 패션의 기획과 판매에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패션 소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질감이며, 사전적 정의(Davis, 1987)로 질감이란 표면 또는 물질의 보여 지고 만져질 수 있는 구조로서 정의되어 있으며, 이정주(2002)의 연구에 따르면 패션에서 사용되는 질감의 측면은 촉각적 측면과 시각적 측면으로 크게 구분 될 수 있다.

패션디자인 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디자인 요소는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거나 디자이너의 개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분류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정선화, 정현주(2009)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유형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는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유형과 더불어 디자인 요소를 실루엣, 소재, 무늬, 장식 및 디테일로 세분화시켜 연구하였다. 추미경, 김혜경(2007)의 밀라노 컬렉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밀리터리 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템, 실루엣, 컬러, 컬러 코디네이션, 패션 이미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김정실(2012)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스타일 분석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스타일을 아이템, 색상, 소재와 패턴으로 분석하였으며, 2010-2011년대 클래식 스타일을 과거의 클래식 스타일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렇듯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형태, 색채, 소재의 3요소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이나 컬렉션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 디자인의 3요소를 통한 조형적 특성의 분석은 디자이너와 브랜드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도출이나 특성

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크리스찬 디올 오프꾸뛰르 컬렉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방법은 2006년 S/S부터 2010 F/W까지 총 10개의 시즌을 대상으로 영국 보그 사이트(www.vogue.co.uk)에 제시된 크리스찬 디올 오프꾸뛰르 컬렉션의 작품 사진 374장을 수집하였다.

연도와 시즌 별 작품 수를 살펴보면 S/S 182벌, F/W 192벌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06년 63벌, 2007년 90벌, 2008년 83벌, 2009년 74벌, 2010년 64벌로 총 374벌을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진을 분석함에 있어서 실루엣은 실물을 직접 분석할 수 없었던 조건으로 캣워크(Catwalk)의 정면 사진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소재의 재질감은 제작된 의상을 직접 만질 수 없는 조건으로 시각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재질감만을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또

항목	논문	내용
디올	정정희, 고현진 (2009)	디올 패션하우스의 아이덴티티를 밝히기 위하여 디올 꾸뛰르 하우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갈리아노에 의한 디올 하우스의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분석
	공미선, 채금석 (2003)	크리스찬 디올 오프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를 역대 크리스찬 디올의 디자이너 별로 시대성, 메종의 디자인 컨셉, 디자인 테크닉을 고찰
	조규화 (1977)	복식 조형의 특징과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고 디올 이전 시대의 복식 조형의 경향과 디올 작품에 나타난 조형의 특성을 정리
존 갈리아노	김영란 (2010)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레트로 경향을 비교, 고찰하여 레트로 경향의 표현 특성 비교 연구
	전혜정, 이윤정 (2006)	크리스찬 디올 패션의 감성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디자이너별 특성을 고찰하고 디올 패션의 감성 이미지를 고저스, 클래식, 쉬크, 로맨틱으로 정리
	구미지 (2001)	갈리아노가 본 디올의 작품세계를 토대로 디올의 것으로 보이게하는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이도록 하는 요소로 나누어 정리한 연구
디자인요소	김정실 (2012)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스타일을 아이템, 색상, 소재와 패턴으로 분석하였으며, 2010-2011년대 클래식 스타일을 과거의 클래식 스타일과 비교 분석
	정선화, 정현주 (2009)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유형과 더불어 디자인 요소를 실루엣, 소재, 무늬, 장식 및 디테일로 세분화시켜 연구
	추미경, 김혜경 (2007)	밀리터리 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템, 실루엣, 컬러, 컬러 코디네이션, 패션 이미지로 나누어 고찰

[표 1] 크리스찬 디올 오프꾸뛰르와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한 모니터나 출력기기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이트에 제시된 사진과 함께 다양한 컬렉션 북과 디테일 컷 등을 비교하였으며, 사진 한 장에 대하여 형태, 색채, 소재의 분석 기준을 포함한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이용하여 각 의상에 관하여 체크 한 후, 빈도 분석을 하였다.

3.2. 분석 기준

분석 기준은 디자인 요소인 형태, 색채, 소재로 크게 분류하였으며, 형태에는 실루엣과 디테일, 색채에는 색상과 톤, 그리고 배색, 소재에는 무늬와 재질감을 포함시켰으며, 선행연구(한성지, 김이영, 2007; 이경희 외, 2001)를 참고로 설정하였다.

형태에서 실루엣은 X, A, H, O, T/Y, F&S, 복합 실루엣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F&S 실루엣은 허리가 좁고 치마 밑단이 퍼지지 않는 실루엣으로 피티드(Fitted) 실루엣과 쉬스(Sheath) 실루엣의 경계가 사진 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이 두 실루엣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F&S(Fitted&Sheath) 실루엣이라 명명하였다. 복합 실루엣은 한 의상에 부정형의 실루엣을 포함하여 한 가지 이상의 실루엣이 합쳐진 것을 말한다. 디테일은 구조적인 디테일을 제외한 장식적인 디테일과 트리밍을 비슷한 속성의 기법들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부착에 의한 장식 방법, 주름에 의한 장식 방법, 끈에 의한 장식 방법, 소재 변형에 의한 장식 방법, 수공예적 기법에 의한 장식 방법으로 분류 하였다.

색채에서 색상은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분류하였으며, 먼저 유채색은 면셀의 10 색상인 레드(R), 옐로우레드(YR), 옐로우(Y), 그린옐로우(GY), 그린(G), 블루그린(BG), 블루(B), 퍼플블루(PB), 퍼플(P), 레드퍼플(RP)의 계열 색상으로 분류하여 종이나라의 120Colors 색지와 비교하였다. 무채색은 White, Gray, Black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톤은 선행연구에 따라 비비드(v)와 스트롱(st)이 포함되는 화려한 색조, 브라이트(b)와 페일(p), 베리페일(vp)이 포함되어 밝은 색조, 라이트(l), 그레이쉬(gr), 라이트 그레이쉬(lgr)가 포함된 수수한 색조, 마지막으로 덜(dl), 덤(dp), 다크(dk)가 포함된 어두운 색조로 구분하였다. 배색은 단일 색상과 배색, 그라데이션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소재에서 무늬는 원단이 제작될 당시 짜인 무늬나 선염, 날염에 의한 무늬로 여기에는 표면에 요철이 없이 나타난 금박이나 은박의 부착도 포함하였다.

무늬의 분류는 민무늬와 부분적으로 나타난 무늬인 부분 무늬, 의상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난 전체 무늬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소재의 재질감은 딱딱하고 뻣뻣한 느낌의 평직 직물이나 힘이 있어 형태의 유지가 용이한 재질의 하드(Hard),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나 촉 늘어지는 재질감의 소프트(Soft), 속이 비치는 트랜스 페어런트(Transparent), 광택감이 있는 브릴리언트(Brilliant), 위의 두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믹스&매치로 분류하였으며, 시각적으로 판별 할 수 있는 하위 카테고리들을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크리스찬 디올의 오프꾸뛰르 컬렉션에 발표된 존 갈리아노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형태적 측면에서 실루엣과 디테일, 색채의 측면에서 색상과 톤, 배색, 그리고 소재의 측면에서 무늬와 재질감을 기준으로 형태적 특성과 디자인 발상적 특성으로 고찰하였다.

4.1. 형태

4.1.1. 실루엣

연도와 시즌에 따른 실루엣의 사용 빈도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크리스찬 디올 오프꾸뛰르 컬렉션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림 1]과 같은 허리가 잘록하고 가슴과 스커트의 밑단이 벌어진 여성의 인체미를 강조한 X자형 실루엣이 209벌인 55.9%로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X실루엣과 마찬가지로 허리를 강조하지만 스커트의 폭이 좁은 형태를 이루는 F&S 실루엣[그림 2]이 59벌로 15.8%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2008년 S/S시즌에는 유일하게 X실루엣보



[그림 1] 2008 F/W



[그림 2] 2007 F/W

		Year & Season										total
		2006		2007		2008		2009		2010		
		S/S	F/W									
Silhouette	X	15 (62.5)	14 (35.9)	18 (40.0)	29 (64.4)	8 (20.0)	34 (79.1)	26 (66.7)	20 (57.1)	20 (58.8)	25 (83.3)	209 (55.9)
	A	2 (8.3)	3 (7.7)	8 (17.8)	2 (4.4)	6 (15.0)	-	1 (2.6)	-	-	2 (6.7)	24 (6.4)
	H	3 (12.5)	5 (12.8)	5 (11.1)	1 (2.2)	9 (22.5)	-	-	-	-	1 (3.3)	24 (6.4)
	O	-	3 (7.7)	1 (2.2)	2 (4.4)	12 (30.0)	-	-	-	-	-	18 (4.8)
	F&S	1 (4.2)	10 (25.6)	9 (20.0)	6 (13.3)	-	9 (20.9)	5 (12.8)	9 (25.7)	8 (23.5)	2 (6.7)	59 (15.8)
	T/Y	2 (8.3)	2 (5.1)	1 (2.2)	5 (11.1)	2 (5.0)	-	6 (15.4)	5 (14.3)	-	-	23 (6.2)
	Compound	1 (4.2)	2 (5.1)	3 (6.7)	-	3 (7.5)	-	1 (2.6)	1 (2.9)	6 (17.6)	-	17 (4.5)
	total	24 (100.0)	39 (100.0)	45 (100.0)	45 (100.0)	40 (100.0)	43 (100.0)	39 (100.0)	35 (100.0)	34 (100.0)	30 (100.0)	374 (100.0)

[표 2] 연도와 시즌에 따른 실루엣의 분포

다 허리선이 강조되지 않는 O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08년 S/S시즌의 트렌드가 볼륨있는 다양한 실루엣으로 허리선을 자유롭게 하거나 험라인을 살리는 형태적 트렌드(2007, 패션넷코리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2008년 F/W 이후에는 O실루엣은 나타나지 않아 허리선을 강조하는 디올 컬렉션의 특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시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X와 F&S 실루엣은 S/S보다 F/W시즌에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소재의 두께감으로 인해 감추어 질 수 있는 여성의 인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 것으로 사료된다.

A 실루엣은 2007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O 실루엣은 2008년도에 가장 많이 나타난 이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T/Y 실루엣의 경우는 2009년도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어깨를 강조한 파워 숄더가 유행했던 것(Trendinkorea, 2010 S/S)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디자인의 발상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하여 형태를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 과장의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장의 방법으로 여성의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여 여성의 가녀린 인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어깨를 크게 부풀려 나타내기도 하였다. 과장과 확대를 통한 실루엣의 변화는 디테일의 다양한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구조적 디테일인 칼라와

소매를 과장시켜 나타냄으로써 바디의 실루엣이 T자형으로 변화되었으며 실루엣 또한 과장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존 갈리아노의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복합 실루엣은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존의 실루엣에서 벗어난 새로운 실루엣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4]는 후면에서 보면 A자형을 나타내지만, 정면에서는 X자 형태의 실루엣 원피스와 어깨에서부터 시작하여 치마의 밑단과 연결이 된 A자형 실루엣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의복을 보여준다.



[그림 3] 2008 S/S



[그림 4] 2008 S/S

4.1.2. 디테일

연도와 시즌에 따른 디테일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전체 디테일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디테일은 주름

		Year&Season										total
		2006		2007		2008		2009		2010		
		S/S	F/W									
Attachment	Embroidery	9 (37.5)	10 (25.6)	15 (33.3)	15 (33.3)	4 (10.0)	4 (9.3)	6 (15.4)	5 (14.3)	-	-	68 (18.2)
	Beads/Spangle	5 (20.8)	22 (56.4)	18 (40.0)	22 (48.9)	22 (55.0)	12 (27.9)	4 (10.3)	12 (34.3)	12 (35.3)	1 (3.3)	130 (34.8)
	Fur/Feather	-	8 (20.5)	1 (2.2)	4 (8.9)	1 (2.5)	1 (2.3)	-	-	-	-	15 (4.5)
	Lace	3 (12.5)	-	-	2 (4.4)	-	-	2 (5.1)	6 (17.1)	-	1 (3.3)	14 (3.7)
	Applique	3 (12.5)	13 (33.3)	8 (17.8)	20 (44.4)	17 (42.5)	3 (7.0)	4 (10.3)	10 (28.6)	9 (26.5)	7 (23.3)	94 (25.1)
	Fringing	-	-	-	-	3 (7.5)	-	-	-	-	7 (23.3)	10 (2.7)
	Drape	10 (41.7)	14 (35.9)	8 (17.8)	4 (8.9)	1 (2.5)	8 (18.6)	-	8 (22.9)	12 (35.3)	3 (10.0)	68 (18.2)
	Gather/Tuck	14 (58.3)	24 (61.5)	19 (42.2)	40 (88.9)	28 (70.0)	32 (74.4)	33 (84.6)	28 (80.0)	28 (82.4)	23 (76.7)	269 (71.9)
Creese	Pleats	-	1 (2.6)	3 (6.7)	2 (4.4)	2 (5.0)	9 (20.9)	-	2 (5.7)	3 (8.8)	1 (3.3)	23 (6.1)
	Shirring	3 (12.5)	7 (17.9)	9 (20.0)	5 (11.1)	1 (2.5)	11 (25.6)	7 (17.9)	1 (2.9)	4 (11.8)	8 (26.7)	19 (5.1)
	Frill/Rush/Flounce	-	-	1 (2.2)	-	-	-	2 (5.1)	2 (5.7)	1 (2.9)	-	6 (1.6)
	Binding/Piping	-	1 (2.6)	4 (8.9)	-	-	-	5 (12.8)	3 (8.6)	-	-	13 (3.5)
String	Racing	11 (45.8)	-	-	-	-	-	-	-	-	-	11 (2.9)
	Rope/Blade	5 (20.8)	10 (25.6)	10 (22.2)	4 (8.9)	3 (7.5)	10 (23.3)	8 (20.5)	3 (8.6)	2 (5.9)	-	55 (14.7)
	Quilting	6 (25.0)	-	-	-	-	-	-	-	-	-	6 (1.6)
Modified Metal	Smoking	-	-	1 (2.2)	-	1 (2.5)	-	3 (7.7)	-	-	-	5 (1.3)
	Knitting	-	-	1 (2.2)	-	-	1 (2.3)	-	-	-	-	2 (.5)
	Patchwork	-	4 (10.3)	4 (8.9)	-	-	-	-	-	-	-	8 (2.1)
	Bow	-	-	6 (13.3)	4 (8.9)	3 (7.5)	5 (11.6)	2 (5.1)	7 (20.0)	3 (8.8)	-	30 (8.0)
Technique	Rosebud	-	-	-	3 (6.7)	5 (12.5)	1 (2.3)	1 (2.6)	1 (2.9)	2 (5.9)	1 (3.3)	14 (3.7)
	Origami	-	-	21 (46.7)	-	-	-	-	-	-	-	21 (5.6)
	total	24 (100)	39 (100)	45 (100)	45 (100)	40 (100)	43 (100)	39 (100)	35 (100)	34 (100)	30 (100)	374 (100)

[표 3] 연도와 시즌에 따른 디테일 분포

에 의한 장식으로, 턱을 이용하거나 개더를 이용하여 주름으로 장식하는 방법이 269벌로 전체의 71.9% 사용되었는데, 이는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이 개더나 턱, 이중 소재를 이용하여 볼륨감을 나타내었던 방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5]는 주름을 사용한 의상으로 개더를 풍성하게 잡아 여성의 인체미를 소재의 질감을 살린 구조적인 형태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비즈와 스팅글, 스타드를 부착한 장식이 130벌로 34.7%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장식은

[Fig.6]과 같이 의상에 화려함을 더하고 있어 존 갈리아노의 화려한 색채 사용과 함께 수공예적인 특징을 잘 나타낸다. 자수를 놓거나 자수가 놓인 오브제를 부착하는 방법이 68벌로 18.2%로 나타났으며, 그 외 끈을 이용한 장식 방법이 99벌로 26.5%, 제 원단으로 오브제를 만든 기법에 의한 장식 방법이 65벌로 17.4%, 소재 변형에 의한 장식 방법이 21벌로 5.6%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2007년 S/S 시즌에 중

이접기(Origami)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이 시즌의 컬렉션 테마인 동양적인 풍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끈을 이용한 장식방법이나 소재변형, 기법에 의한 장식은 S/S 시즌에 많이 나타났으나, F/W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한 소재의 두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표현의 용이성과 효율성의 차이로 시즌에 관련한 소재변형 방법의 선택으로 사료되어진다.

끈을 이용한 장식, 소재변형을 이용한 장식, 기법을 이용한 장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여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 트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부착물의 장식이나 형태의 복잡함을 나타내기 보다는 소재 자체의 재질감과 심플한 형태로 디자인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2009 S/S



[그림 6] 2008 S/S

디테일에 의한 디자인의 발상은 구조적인 디테일을 활용한 방법과 장식적인 디테일을 활용한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구조적 디테일을 활용한 방법의 예로는 칼라를 확대시키거나 스커트의 밑단을 길이가 다른 여러 겹으로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이었으며, 장식적인 디테일을 활용한 방법으로는 의상에 포인트를 주기 위한 꽃이나 리본의 형태를 과장되게 나타내어 시선을 잡기도 하였다. [그림 7]은 스커트 부분에 다양한 소재를 중첩되게 사용하여 X자 형태의 실루엣이 두드러지도록 하면서 스커트의 우측은 프릴을 여러 겹으로 나타내고 좌측은 드레이프와 플레어의 결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림 8]은 장식 디테일과 구조적 디테일의 확대의 예로 칼라가 커지는 동시에 장미 형태의 장식적 요소가 과장되게 나타나 칼라와 장식 장미가 균형을 이루며, 의상에 장식된 꽃이 점차 확대되어 나타나 보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어떠한 디테일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전환하여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타

나기도 하였으며, 의복의 소재가 아닌 소재로 만들어진 장식물을 의상에 부착하는 방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림 7] 2007 F/W



[그림 8] 2008 S/S

4.2. 색채

4.2.1. 색상

연도와 시즌에 따른 색상의 분포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단일색상의 사용은 270벌로 전체 374벌 중의 72.2%로 나타났으며, 단일 색상 270벌 중 유채색은 173벌로 64.1%, 무채색은 97벌로 35.9%가 나타났다.

유채색은 난색 계열의 색상이 많이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R계열 색상이 37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YR계열 색상이 32벌, RP계열 색상이 26벌, Y계열 색상이 25벌 순으로 사용 되어 디올 의상의 특징인 난색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여성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잘 나타내고 있다. 컬러는 시각적인 자극을 가장 먼저 전달하며, [그림 9]와 같이 2006 S/S 컬렉션의 테마인 프랑스 혁명을 부각시킨 어두운 핏빛의 붉은 색은 R계열 색상이 가진 태양, 정열 또는 혁명을 연상시키는 색의 연상 의미의 의



[그림 9] 2006 S/S



[그림 10] 2009 S/S

		Year & Season										total	
		2006		2007		2008		2009		2010			
		S/S	F/W										
Solid	R	7 (35.0)	6 (20.6)	1 (3.8)	8 (25.8)	3 (8.1)	1 (2.4)	6 (16.2)	3 (12.5)	2 (14.3)	-	37 (13.7)	
	YR	3 (15.)	2 (6.9)	2 (7.8)	3 (9.7)	8 (21.7)	5 (11.9)	2 (5.4)	5 (20.9)	1 (7.1)	1 (10.0)	32 (11.8)	
	Y	2 (10.0)	1 (3.5)	4 (15.4)	2 (6.5)	7 (18.9)	1 (2.4)	2 (5.4)	3 (12.5)	2 (14.3)	1 (10.0)	25 (9.3)	
	GY	-	3 (10.3)	1 (3.8)	1 (3.2)	3 (8.1)	1 (2.4)	-	1 (4.2)	-	1 (10.0)	11 (4.1)	
	G	-	-	-	-	-	1 (2.4)	-	-	-	-	1 (0.4)	
	BG	-	-	-	-	-	-	-	-	-	-	-	
	B	-	-	1 (3.8)	1 (3.2)	2 (5.4)	4 (9.5)	2 (5.4)	-	-	-	10 (3.7)	
	PB	-	2 (6.9)	-	4 (12.9)	2 (5.4)	2 (4.8)	3 (8.1)	-	1 (7.1)	2 (20.0)	16 (5.9)	
	P	-	1 (3.5)	3 (11.5)	1 (3.2)	2 (5.4)	3 (7.1)	-	2 (8.3)	1 (7.1)	2 (20.0)	15 (5.6)	
	RP	1 (5.0)	4 (13.8)	4 (15.4)	4 (12.9)	2 (5.4)	4 (9.5)	-	6 (25.0)	-	1 (10.0)	26 (9.6)	
		13 (65.0)	19 (65.5)	16 (61.5)	24 (77.4)	29 (78.4)	22 (52.4)	15 (40.5)	20 (83.4)	7 (50.0)	8 (80.0)	173 (64.1)	
	achromatic	White	4 (20.0)	1 (3.5)	4 (15.4)	3 (9.7)	1 (2.7)	5 (11.9)	17 (45.9)	2 (8.3)	5 (35.7)	1 (10.0)	43 (15.9)
		Gray	-	-	2 (7.7)	-	1 (2.7)	3 (7.1)	-	-	2 (14.3)	-	8 (3.0)
Black		3 (15.0)	9 (31.0)	4 (15.4)	4 (12.9)	6 (16.2)	12 (28.6)	5 (13.5)	2 (8.3)	-	1 (10.0)	46 (17.0)	
	7 (35.0)	10 (34.5)	10 (38.5)	7 (22.6)	8 (21.6)	20 (47.6)	22 (59.5)	4 (16.6)	7 (50.0)	2 (20.0)	97 (35.9)		
total	20 (100.0)	29 (100.0)	26 (100.0)	31 (100.0)	37 (100.0)	42 (100.0)	37 (100.0)	24 (100.0)	14 (100.0)	10 (100.0)	270 (100.0)		

[표 4] 연도와 시즌에 따른 단일 색상 분포

복에 적용시켜 나타낸 예라고 할 수 있다. 색상의 표현은 하나의 의상에서 나타나기보다 전체적인 컬렉션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해주고, 각 컬렉션의 테마를 표현하기 위해 몇 가지의 메인 컬러와 그 외 부수적인 컬러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채색은 블랙과 화이트가 46벌과 43벌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그레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Fig 10]은 크리스찬 디올이 선호했던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한 X실루엣이 존 갈리아노를 통해 과장되게 표현되었으며, 화이트 색상의 로맨틱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S/S 시즌에는 R계열, Y계열, 화이트, 그레이가 F/W 시즌에 비해 많이 나타났으며, F/W 시즌에는 GY 계열, PB 계열, P 계열, RP 계열의 색상과 블랙이 많이 나타났다. 두 시즌을 비교해 월등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Y계열의 색상과 화이트의 사용, RP 계열의 색상과 블랙의 시즌을 대변하는 색상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크리스찬 디올의 오프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존 갈리아노 작품의 색상 특성은 기존의 크리스찬 디올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여성스러운 컬러를 베이스로 디자이너의 취향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S/S 시즌에는 난색 계열의 밝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였고, F/W 시즌에는 차분하고 중후한 색상을 블랙과 함께 사용함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여성상을 표현하였다.

특히 2006년도에는 R계열 색상과 블랙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난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컬렉션의 테마인 프랑스 혁명을 보다 강렬하게 나타내기 위한 컬러의 효과로 사용하였다. 또한 2008 F/W 시즌에는 블랙이 많이 나타났으며, 디자인의 심플함을 다양한 소재의 질감 변화로 나타내면서 질감의 변화에 따라 블랙의 색감에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단일 색상의 유채색 사용은 모든 해에 가장 많았고, 2008년도에 가장 많이 나타난 이후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8 S/S 시즌의 엑시드한 유채색의

강렬한 컬러가 트렌드 컬러(IFP, 2008 S/S)로 떠오른 이후 2008 F/W 시즌에는 무채색 계열의 컬러 영역이 확장되며 약한 색감을 머금은 무채색의 사용이 예측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2.2. 톤

단일 색상의 유채색 173벌에 따른 톤의 분포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크리스찬 디올 오프꾸뛰르 컬렉션에서는 [그림 11]과 같은 채도가 높고 선명한 색조인 비비드(v)와 스트롱(st)을 포함한 화려한 색조나 [그림 12]와 같이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더해주는 페일(p)을 비롯한 베리 페일(vp), 브라이트(b)와 같은 밝은 색조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몇 가지 색상을 제외한 색상에서는 어두운 색조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R계열의 색상의 경우 화려한 색조가 16벌로 43.2%가 나타나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두운 색조, 밝은 색조, 수수한 색조 순으로 사용되었다. YR계열의 색상은 수수한 색조가 가장 많았고, 어두운 색조, 화려한 색조, 밝은 색조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나타났다. Y계열 색상의 경우 화려한 색조가 9벌로 36.0%가 나타났으며, 수수한 색조, 밝은 색조 순으로 나타났다. GY계열 색상은 수수한 색조(45.4%)가 가장 많이 쓰였으며, 어두운 색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G계열 색상은 수수한 색조가 단 1벌 등장하였으며, BG계열의 색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B계열 색상은 밝은 색조와 수수한 색조가 나타났으며, 화려한 색조나 어두운 색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PB계열 색상의 경우에는 수수한 색조와 화려한 색조, 밝은 색조가 나타났으며, P계열 색상은 밝은 색조가 8벌(53.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화려한 색조가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RP계열 색상의

경우에는 밝은 색조가 13벌로 가장 많았으며, 화려한 색조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어두운 색조와 수수한 색조는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 2008 S/S

[그림 12] 2008 F/W

이상의 결과에서 크리스찬 디올 오프꾸뛰르의 톤의 선택은 색상의 선택과 함께 컬렉션 전체의 테마와 브랜드 고유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화려하고 밝은 색조들로 구성되어지며, 컬렉션의 분위기나 색상의 전환을 위하여 수수한 색조를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3. 배색

하나의 의상에 2가지 이상의 색채가 들어간 의상의 배색 분포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배색에 있어서는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블랙과 유채색의 배색과 화이트와 유채색의 배색은 각 18벌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레이와 유채색의 배색은 7벌로 다소 적게 나타났다.

배색의 사용은 시즌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S/S와 F/W 모두 색상의 선명한 대비로 나타나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 방법이 부각되어 나

		Color										
		R	YR	Y	GY	G	BG	B	PB	P	RP	total
Tone	Clear	16 (43.2)	7 (21.9)	9 (36.0)	4 (36.4)	-	-	-	5 (31.2)	5 (33.3)	10 (38.5)	56 (32.4)
	Light	7 (18.9)	6 (18.7)	6 (24.0)	2 (18.2)	-	-	7 (70.0)	5 (31.2)	8 (53.4)	13 (50.0)	54 (31.2)
	Dull	4 (10.8)	11 (34.4)	7 (28.0)	5 (45.4)	1 (100)	-	3 (30.0)	6 (37.6)	2 (13.3)	1 (3.8)	40 (23.1)
	Deep & Dark	10 (27.0)	8 (25.0)	3 (12.0)	-	-	-	-	-	-	2 (7.7)	23 (13.3)
	total	37 (100)	32 (100)	25 (100)	11 (100)	1 (100)	-	10 (100)	16 (100)	15 (100)	26 (100)	173 (100)

[표 5] 연도와 시즌에 따른 톤 분포

		Year & Season										total	
		2006		2007		2008		2009		2010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Combination	chromatic + chromatic	1 (25.0)	4 (40.0)	3 (15.8)	2 (14.3)	-	-	-	2 (18.2)	8 (40.0)	5 (25.0)	25 (24.0)	
	achromatic + chromatic	Black + chromatic	-	3 (30.0)	-	-	1 (33.3)	-	-	4 (36.4)	3 (15.0)	7 (35.0)	18 (17.4)
		White + chromatic	3 (75.0)	-	5 (26.3)	-	-	-	-	2 (18.2)	5 (25.0)	3 (15.0)	18 (17.4)
		Gray + chromatic	-	-	2 (10.5)	1 (7.1)	-	-	-	-	3 (15.0)	1 (5.0)	7 (6.7)
			3 (75.0)	3 (30.0)	7 (36.8)	1 (7.1)	1 (33.3)	-	-	6 (54.5)	11 (55.0)	11 (55.0)	43 (41.5)
	+ achromatic	White + Black	-	-	-	1 (7.1)	-	-	2 (100)	2 (18.2)	1 (5.0)	-	6 (5.8)
		Black + Gray	-	-	-	-	-	-	-	1 (9.1)	-	-	1 (0.9)
			-	-	-	1 (7.1)	-	-	2 (100)	3 (27.3)	1 (5.0)	-	7 (6.7)
			-	-	-	-	-	-	-	-	-	-	-
	Gradation	color difference	-	2 (20.0)	6 (31.6)	2 (14.3)	2 (66.7)	1 (100)	-	-	-	4 (20.0)	17 (16.3)
tone difference		-	1 (10.0)	3 (15.8)	8 (57.2)	-	-	-	-	-	-	12 (11.5)	
		-	3 (30.0)	9 (47.4)	10 (71.5)	2 (66.7)	1 (100.)	-	-	-	4 (20.0)	29 (27.8)	
		4 (100)	10 (100)	19 (100)	14 (100)	3 (100)	1 (100)	2 (100)	11 (100)	20 (100)	20 (100)	104 (100)	

[표 6] 연도와 시즌에 따른 배색 분포

타났으며, [그림 13]은 블랙과 화이트의 무채색과 함께 레드 컬러의 강렬한 대비로 선명하고 화려하며,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S/S 시즌에는 화이트와 유채색의 배색이 F/W 시즌에 비해 많이 나타났으며, F/W 시즌에는 유채색과 유채색의 배색을 비롯하여 블랙과 유채색의 배색이 월등히 많이 나타났으며, S/S 시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블랙과 그레이의 배색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색상의 사용에서도 나타났듯이 S/S에는 화이트가 사용되어 밝고 화려한 느낌의 배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F/W에는 블랙과의 배색을 사용함으로써 차분한 느낌의 배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2008년도에 배색 사용은 현저히 적었으며, 2010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08년도에는 블랙과 유채색의 배색만이 나타났으며, 2008년도와 2009년도를 제외한 해에서는 유채색과 유채색의 배색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라데이션은 2007년 가장 많이 나타난 후 감소하였고, 2009년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시즌 모두 색상 차이에 의한 그라데이션이 톤의 차이에 의한 그라데이션 방법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S/S 시즌보다 F/W 시즌에서의 그라데이션 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그림 14]는 유사 색상을 사용

하여 변화를 나타낸 의상으로 자연스러운 컬러의 변화로 상하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13] 2010 S/S



[그림 14] 2007 S/S

4.3. 소재

4.3.1. 무늬

연도와 시즌에 따른 무늬의 분포는 [표 7]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늬가 없고, 소재의 재질감을 살린 의상이 286벌로 76.5%, 다음으로 [그림 15]와 같이 상의나 하의, 또는 의상의 일부분에 무늬를 사용한 의상이 48벌로 12.8%, 그리고 의상 전체

		Year & Season										total
		2006		2007		2008		2009		2010		
		S/S	F/W									
Pattern	none	14 (58.3)	34 (87.2)	30 (66.7)	37 (82.2)	28 (70.0)	38 (88.4)	30 (76.9)	29 (82.9)	23 (67.6)	23 (76.7)	286 (76.5)
	part	9 (37.5)	1 (2.6)	11 (24.4)	3 (6.7)	2 (5.0)	1 (2.3)	7 (17.9)	3 (8.6)	6 (17.6)	5 (16.7)	48 (12.8)
	allover	1 (4.2)	4 (10.3)	4 (8.9)	5 (11.1)	10 (25.0)	4 (9.3)	2 (5.1)	3 (8.6)	5 (14.7)	2 (6.7)	40 (10.7)
	total	24 (100.0)	39 (100.0)	45 (100.0)	45 (100.0)	40 (100.0)	43 (100.0)	39 (100.0)	35 (100.0)	34 (100.0)	30 (100.0)	374 (100.0)

[표 7] 연도와 시즌에 따른 무늬 분포

의 무늬 사용이 40벌로 10.7%로 전체 의상의 3/4정도가 무늬가 없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쇼의 흐름으로 보아 무늬는 의상에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무늬가 있는 의상을 한 컬렉션의 악센트로 사용하는 정도로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때로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에서 크리스찬 디올의 레오파드 무늬가 새롭게 선보여 지기도 하였다[그림 16].

민무늬는 S/S 시즌보다 F/W 시즌에 많이 나타났으며, S/S 시즌에는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무늬를 사용한 의상이 F/W 시즌보다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밝고 화사하게 표현되어지는 S/S 시즌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연도별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 민무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부분 무늬나 전체 무늬는 비슷한 수를 나타내었다. 200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무늬가 사용된 의상이 아이템이나 부분적으로 무늬가 나타난 의상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해에는 전체무늬보다 부분 무늬가 많이 나타났다.



[그림 15] 2007 S/S



[그림 16] 2008 S/S

4.3.2. 재질감

연도와 시즌에 따른 재질감의 분포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7]과 같이 표면에 광택이 느껴지는 실키(Silky) 느낌의 재질감을 가진 소재가 144벌 38.5%로 가장 많이 쓰였고, 다음으로 속이 비치며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의 쉬어(Sheer) 재질이 40벌로 10.7%, 크리미(Creamy) 재질이 31벌로 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크리스찬 디올 오프꾸뛰르 컬렉션에서는 고전적인 여성스러움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한 브릴리언트 소재의 실키 소재가 시즌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림 17] 2009 S/S



[그림 18] 2009 F/W

특징적인 부분은 2006년 S/S 시즌에는 글로시한 재질을 사용한 것을 볼 때, 디자이너의 개성이 반영된 컬렉션의 테마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특정 시즌에만 나타나는 소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S/S 시즌에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광택감의 실키 재질의 소재가 포함된 브릴리언트 소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평직의 면이나 마의 플레인 재질인하드 재질의 소재가 F/W 시즌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가죽과 같은 스틱프 재질의 소재 보다 시원한 느낌의 소재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F/W 시즌에는 브릴리언트 재질의 소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S/S 시즌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트랜스페어런트 소재와 소프트 소재, 여러 소재의 믹스앤매치가 증

		Year & Season										total
		2006		2007		2008		2009		2010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oft	Creamy	-	7 (17.9)	3 (6.7)	1 (2.2)	2 (5.0)	4 (9.3)	2 (5.1)	5 (14.3)	2 (5.9)	5 (16.7)	31 (8.3)
	Bulky	-	3 (7.7)	1 (2.2)	-	-	-	-	2 (5.7)	-	4 (13.3)	10 (2.7)
	Lofty	1 (4.2)	-	2 (4.4)	-	-	-	-	1 (2.9)	-	-	4 (1.1)
	Limp	-	1 (2.6)	1 (2.2)	-	-	-	-	-	-	-	2 (.5)
		1 (4.2)	11 (28.2)	7 (15.5)	1 (2.2)	2 (5.0)	4 (9.3)	2 (5.1)	8 (22.9)	2 (5.9)	9 (30.0)	47 (12.6)
Hard	Plain	2 (8.3)	-	2 (4.4)	2 (4.4)	1 (2.5)	-	1 (2.6)	3 (8.6)	5 (14.7)	-	16 (4.3)
	Stiff	3 (12.5)	1 (2.6)	2 (4.4)	-	3 (7.5)	-	-	-	-	-	9 (2.4)
		5 (20.8)	1 (2.6)	4 (8.8)	2 (4.4)	4 (10.0)	-	1 (2.6)	3 (8.6)	5 (14.7)	-	25 (6.7)
Brilliant	Silky	2 (8.3)	-	28 (62.2)	27 (60.0)	33 (82.5)	-	30 (76.9)	7 (20.0)	12 (35.3)	5 (16.7)	144 (38.5)
	Glossy & Metallic	-	14 (35.9)	-	-	-	-	-	-	-	-	14 (3.7)
		2 (8.3)	14 (35.9)	28 (62.2)	27 (60.0)	33 (82.5)	-	30 (76.9)	7 (20.0)	12 (35.3)	5 (16.7)	158 (42.2)
Transparent	Sheer	2 (8.3)	5 (12.8)	2 (4.4)	2 (4.4)	-	9 (20.9)	3 (7.7)	3 (8.6)	5 (14.7)	9 (30.0)	40 (10.7)
	Slick	4 (16.7)	-	1 (2.2)	1 (2.2)	-	13 (30.2)	-	6 (17.1)	1 (2.9)	-	26 (7.0)
	Lacy	-	-	-	-	-	1 (2.3)	-	-	4 (11.8)	-	5 (1.3)
		6 (25.0)	5 (12.8)	3 (6.6)	3 (6.6)	-	23 (53.4)	3 (7.7)	9 (25.7)	10 (29.4)	9 (30.0)	71 (19.0)
Mix & Match	Soft & Hard	-	1 (2.6)	-	1 (2.2)	-	-	-	-	-	-	2 (.5)
	Soft & Brilliant	-	-	3 (6.7)	1 (2.2)	-	-	-	3 (8.6)	2 (5.9)	4 (13.3)	13 (3.5)
	Soft & Transparent	-	1 (2.6)	-	-	-	13 (30.2)	-	3 (8.6)	1 (2.9)	1 (3.3)	19 (5.1)
	Hard & Brilliant	1 (4.2)	-	-	-	1 (2.5)	-	-	-	-	-	2 (.5)
	Hard & Transparent	7 (29.2)	-	-	-	-	3 (7.0)	-	-	-	-	10 (5.1)
	Brilliant & Transparent	2 (8.3)	6 (15.4)	-	10 (22.2)	-	-	3 (7.7)	2 (5.7)	2 (5.9)	2 (6.7)	27 (7.2)
		10 (41.7)	8 (25.6)	3 (6.7)	12 (26.6)	1 (2.5)	16 (37.2)	3 (7.7)	8 (22.9)	5 (14.7)	7 (23.3)	73 (19.5)
	total	24 (100)	39 (100)	45 (100)	45 (100)	40 (100)	43 (100)	39 (100)	35 (100)	34 (100)	30 (100)	374 (100)

[표 8] 연도와 시즌에 따른 재질감 분포

가하였다. 소프트 소재 중에서도 크림리한 소재가 22별로 11.5%가 나타났는데 이는 부드럽고 따뜻한 소재를 선호하는 계절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소재에 의한 발상은 [그림 18]과 같은 속이 비치며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의 쉬어(Sheer) 재질을 활용하여 속옷을 비치게 하거나 속옷의 형태를 겉옷에 결합시키는 방법과 같은 반대 발상이 나타났다. 또

한 하나의 아이템에 여러 소재가 결합되거나 하나의 소재 위에 또 다른 소재가 부착되어 나타나는 부가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림 19]는 원피스의 형태로 나타난 재킷을 본래 재킷의 소재로 사용되는 소재를 벗어난 속이 비치는 투명한 소재로 변경하였다. [그림 20]은 용기있는 여성인 잔다르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여성의 부드럽고 하늘하늘한 느낌의 소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틀

렛의 결합으로 연약한 여성의 표출 되는 강인한 성품을 소재의 전환과 결합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림 19] 2009 F/W



[그림 20] 2006 F/W

5. 결론

전통을 중시한 오래되고 세련되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 디올에 영입된 존 갈리아노는 젊고 캐주얼한 감각을 덧입혀 디올만의 여성스러움으로 새롭게 어필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창출함에 있어서 디자인 요소의 변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디자인 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디자이너의 감각과 조형적인 특성을 찾아내어 고찰하는 것은 새로운 창의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찬 디올 오프무어르 중 존 갈리아노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 형태, 색채, 소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의 기본 골격인 실루엣의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실루엣은 X 실루엣, 다음으로 F&S 실루엣 순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예외적으로 O 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용된 디테일은 개더나 턱에 의한 주름장식이었으며, 비즈, 스팅글, 애플리케 등을 이용한 부착에 의한 장식이 뒤를 따랐다. 실루엣은 과장과 확대를 통하여 여성의 인체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디테일의 과장이나 부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때로는 디테일의 과장을 통하여 실루엣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둘째, 색의 사용 방법으로는 단일 색상의 사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배색하는 방법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단일 색상의 사용으로는 R, YR, RP 순의 난색 계열 색상이 많이 나타났고, BG 계열의 색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배색의 경우에는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색 방법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S/S 시즌에는 화이트와 유채색의 배색이, F/W 시즌에는 블랙과 유채색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무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일 경우 그레이와 화이트의 배색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라데이션의 경우에는 톤 차이에 의한 방법보다 색상 차이에 의한 방법이 많이 나타났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그라데이션의 사용은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단일색상의 유채색에 따른 톤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화려한 색조와 밝은 색조의 사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색상에서만 어두운 색조가 사용되었다. 색상은 색의 상징 의미와 그에 따른 이미지를 동반한 연상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색의 변화와 부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소재의 사용으로는 무늬가 없는 의상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였으며, F/W 시즌보다 S/S 시즌에 무늬의 활용도가 높았다. 재질감에 있어서는 시즌에 관계없이 의상의 표면에 부드러운 광택이 느껴지는 실키 소재였으며, 다음으로 쉬어, 크림미 순으로 나타났다. S/S 시즌에는 실키 소재의 사용과 더불어 쉬어 소재의 사용이 눈에 띄었으며, F/W 시즌에는 실키 소재의 사용이 다소 줄어들고 크림미 소재의 사용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계절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무늬는 다양한 장르의 회화를 응용하여 시즌의 테마를 부각시키는 역할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재질감은 서로 다른 느낌의 소재를 결합하여 나타내거나 의복의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를 통하여 표현되어 지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크리스찬 디올 오프무어르에 나타난 존 갈리아노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크리스찬 디올의 대를 잇는 한 디자이너로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조형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디자인 요소의 변화와 트렌드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선대의 디자이너와 현재의 디자이너의 디자인 요소 활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인해 브랜드의 이미지의 변화와 전통성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시켜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디자인의 3요소인 선, 색채, 소재는 디자인의 특성을 발견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며, 유명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요소 활용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점 또한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디자인 요소에 관련한 연구가 꾸준

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브랜드와 디자이너, 시즌을 제한하여 연구한 결과로 일반적인 디올 오프꾸뛰르의 특성이나 존 갈리아노 작품의 특성으로 단정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실물을 확인하기 힘들었던 조건으로 캣워크 사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실루엣의 경우에는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모니터나 인쇄기기의 차이에 따른 색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참고문헌

- 공미선, 채금석 (2003). Christian Dior 오프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진알리티. 『한국복식학회지』. 53(2), 57-70.
- 구미지 (2001). 디올 작품에 대한 갈리아노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1(8), 43~49.
- 김명숙 (1995). 크리스찬 디올의 생애와 그의 작품 세계. 『목포대학교 논문집』. 16(2), 835-852.
- 김영란 (2010).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69-85.
- 김정실 (2012). 현대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스타일 분석. 『한국디자인포럼』. 36. 421-432.
- 이경희 외 (2001). 『패션 디자인 발상』. 서울 : 교문사.
- 이정주 (2002). 패션디자인 요소로서의 소재질감. 『혜전대학』.
- 한성지, 김이영 (2007). 『패션디자인』. 서울 : 교문사.
- 전해정, 이윤정 (2006). 크리스찬 디올 패션의 감성 이미지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6(8), 123-137.
- 정선화, 정현주 (2009).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표현유형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1), 155-167.
- 정정희, 고현진 (2009). 디올 패션하우스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연구 - 존 갈리아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9(6), 126-139.
- 조규화 (1977). 크리스찬 디올研究, 그의 作品속에 나타난 造形의 志向. 『국민대학교 논문집 법학논총』, 12, 235-254.
- 추미경, 김혜경 (2007). 밀라노 컬렉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 분석.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6(2), 381-393.

참고 웹사이트

- 패션넷 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 인터패션플래닝 <http://www.ifp.co.kr>
- 영국 보그 <http://www.vogue.co.uk>
- 트렌드 인 코리아 <http://www.trendinkorea.com>